

김 미 선 시 집

한번도 그의 앞에선 소리내어 불러본 적이 없지만 편지에는 수백 번도 더 써본 이름.
나는 그의 이름을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른 어떤 글보다 예뻐
써진다는 게 기쁘고 심오록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저리질 것 없이 사랑할 자유가 있음을 행복으로 안다.

편지

회상
우연히 만난 사람
감추고 싶은 이야기
미틸다
아직은 어리지만
화색빛 거리


여름날의 풍경
눈물
안개·새벽비 그리고 고독
마지막 전화
시 같은 사랑

미안해요
열병
미안한 고백

추신

김 미 선

오랫동안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내 심정을 털어놓다 보니
그 사람은 고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된다.
이제부터라도 그를 해방시켜 주고 싶다.
가슴에만 담아두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일 테니까.
나 한 사람의 지나간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에서 놀랐고 한편으론 책임감도 무겁다.
대부분의 독자가 20대의 젊은 여성들인데
왜 이리 가슴 아픈 이별을 맛보아야 하는지 안타깝고,
내 글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나처럼 긴 세월을 정신적인 방황을 하거나
무기력해지면 어쩌나 하여 걱정스럽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사연은
다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에 대한 미련은 없다.
쓰지 않는다 하여 삭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미 나를 떠난 사람에게 절대로 사랑을
구걸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어져도 아름답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또한 아름답다.
이별 이후엔 좋았던 기억만 지니고 살고,
서운한 기억일수록 빨리 자우고 살아야 한다.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in 2023 with funding from
Kahle/Austin Foundation

소담시인·5

편지 Ⅲ

P. S.

멋지게 웃어주던 꼬마인형의 뒷모습처럼
안타까이 흐르는 감정의 파편들...

김미선 시집



내가 좋아하는 음악 - Lee Oskar를 아세요?

글이라는 것에 상당한 위력이 있음을 알았다. 솔직히 말해 나는 지금껏 내 글에 대해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그런 주제에 겁도 없이 두 권의 책을 만들었고 세권째의 책을 만들고 있으니 어쩌면 여러 사람들이 비난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삼년 전에 만들었던 책으로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편지를 받았고 전화도 받았으며 몇몇의 사람들과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었다. 한결같이 나처럼 지나간 세월 속에 가슴 아픈 추억이 있었거나 현재에도 이별의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도 해주지 못했음도 안다. 다만 그들을 대신하여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것밖에 없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첫사랑은 추억이 되고,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과거로 인식된다. 과거라는 말은 그저 이미 가버린 것이 되지만 여기서 표현되는 과거는 그저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말로 평가절하 되고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이야기지만 떳떳하게 말하기가 거북할지도 모른다. 하긴 나 역시 결혼을 했거나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솔직할 수 있었을까 싶다.

오랫동안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여러가지 표현으로 내 심정을 털어놓다보니 그 사람은 고통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부터라도 그를 해방시켜주고 싶다. 가슴에만 담아두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이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일테니까.

나 한 사람의 지나간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무겁다. 대부분의 독자가 20대의 젊은 여성들인데 왜 그리 가슴 아픈 이별을 맛보아야 하는지 안타깝고, 내 글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나처럼 긴 세월 동안 정신적인 방황을 하거나 무기력해지면 어쩌나 하여 걱정스럽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사연은 다시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에 대한 미련은 없다. 쓰지 않는다 하여 삭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 기회를 빌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미 나를 떠난 사람에게 절대로 사랑을 구걸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만남은 곧 이별을 의미하고, 이별은 또다른 만남을 전제로 한다. 이별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는 건잡을 수 없는 오묘한 감정이므로 여

간한 힘이 없이는 이별이 무산되지 않는다. 떠나려는 자는 떠나 보낼 수 있고 돌아오는 자는 맞이해 줄 여유를 갖도록 하자.

사랑이란 것은 이루어져도 아름답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또한 아름답다. 이별 이후엔 좋았던 기억만 시니고 살고, 서운한 기억일수록 빨리 지우고 살아야 한다.

겨울이 되었다.

추운 계절만큼은 이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듯이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끝으로 나같은 사람에게 내 목숨과도 같은 세권의 책을 만들어 주시고도 늘 우정어린 눈길로 바라봐주시는 '소담'의 이태권 사장님께 늦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내게 가슴속의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일일이 회답 못 드려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다. 조만간 모든 분들에게 정성이 담긴 엽서라도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의 만남이 곧 사랑이었음을 느낀다.

이제 훌가분한 마음으로 펜을 놓으며 편한 자세로 몸을 벽에 기대고 음악을 듣는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 Lee Oskar를 아세요?

1991. 11

김미선



제 1 부

감추고 싶은 이야기

| |
|------------------------|
| 회상 · 13 |
| 雨期 · 15 |
| 우연히 만난 사람 · 16 |
| 감추고 싶은 이야기 · 18 |
| 마틸다 · 20 |
| 이런 걸 보고 · 22 |
| 질서속의 무질서 무질서속의 질서 · 25 |
| 우린 서로 사랑해 · 26 |
| 그대 이름 앞에선 · 28 |
| 아직은 어리지만 · 30 |
| 여행 · 32 |
| 화색빛 거리 · 36 |
| 여름날의 풍경 · 38 |
| 서로 다른 이유로 · 40 |
| 어느 한 순간에도 · 42 |
| 눈물 · 44 |



제 2 부

안개 · 새벽비 그리고 고독

- 무관심 · 49
- 안개 · 새벽비 그리고 고독 · 50
- 마지막 전화 · 52
- 굳이 말로 하자면 · 54
- 그저 친구라는 이유로 · 56
- 마음으로 사랑해 · 58
- 시 같은 사랑 · 60
- 사랑의 종말을 위한 독백 · 62
- 제제 · 1 · 64
- 제제 · 2 · 68
- 매일밤 커피를 마시며 · 72
- 사랑의 아픔 · 74
- 사랑도 세월이 흐르면 · 76
- 한 여자 · 78
- 미안해요 · 80
- 떠나는 그대에게 · 83



제 3 부

미안한 고백

| | |
|--------|-------|
| 무제 | · 87 |
| 열병 · 1 | · 88 |
| 열병 · 2 | · 97 |
| 여름의 의미 | · 102 |
| 눈과 입 | · 106 |
| 가을 여행 | · 110 |
| 초겨울 | · 112 |
| 휴일 | · 114 |
| 미안한 고백 | · 118 |



감추고 싶은 이야기

때로는 누군가가
몹시 그리워 울지만
어쩌면 나는
외로움을 오히려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기대 한사람만을
소중하게 대할 수도 없었고
웃는 얼굴로
항상 편하게 해줄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회상

이렇게 가끔씩
허전한 밤엔
새삼
너를 떠올리게 되다니

그다지
옛일도 아닌데
아주 오래된 것 같아

세월이 조금 흐르고야
너를 이해할 수 있다니
먼 곳에 있을
네 생각에
한번도 마음 편한 적 없었어

그래
서로 다른 안목을 가지고
나만이 옳다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가
나악한 거였는지도 몰라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많은 것을 뉘우친 거야

그래
가끔은 같은 공통점을 찾아
밤새워 술마시고
떠들며
우리가 옳다고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 그 의미는
대단한 거였지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나는 너를 이해한 거야

雨期

유리창에 흐르는
빗물이
서러운 몸짓으로
가슴에 고인다

모두
잊으려고 묻어 두었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가슴 시리던 세월이
무척 길었다
그 시절 아쉬워
후회도 했지

멀리 있을 그대에게
묻고 싶은 말
-아직 그대
나를 기억하나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울고 섰는데
어찌
가슴 깊이 가라앉혀 둔
서러운 감정들은
가실 길이 없는지

우연히 만난 사람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

어색한 눈길로 쳐다본
그의 긴 목에
안개빛 그리움이
뿌옇게 번지고 있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드나
서로 잊을 만할 때
마주서게 하는가

낯선 모습처럼
우뚝 선 이 자리
할말을 잊고
바라만 보는 우리

유난히 커뇌는
그를 남겨 두고서 돌아서려니
붉은 노을은 왜
가슴을 흔들지?

가끔씩
그가 궁금도 했지만

그냥 잊고 사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네

새삼 만나면
무엇부터 말을 해야 하나
괜한 걱정이
나를 괴롭혔어

속으론 반가워
손을 잡고 싶지만
돌아서려니 내 발길이
왜 이리도 무겁지?

감추고 싶은 이야기

때로는 누군가가
몹시 그리워 울지만
어쩌면 나는
외로움을 오히려 좋아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그대 한사람만을
소중하게 대할 수도 없었고
웃는 얼굴로
항상 편안하게 해줄
자신도 없었으니까요

그런 어느날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대를 지켜보는 나를 발견하고

함께 있을 땐
고개 숙이지만
돌아서 올 땐
그대 모습 선하지요

지금도 보고파서
달려가고는 싶지만
어쩐 일인지
그런 나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날
스스로 놀랐습니다
속마음을 감추며
그대를
.. 바라보아도

내 모든 것이
보여진 것만 같아
돌아서 올 땐
항상 후회를 하곤 했지요

긴 밤을 지새며
홀로
뒤척이는 것을
그댄
이 시간 잠시라도
내 마음 헤아려 줄지

마틸다

그대여 듣고 있나요
어찌 대답 없나요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틸다
지금 나에겐
당신 생각뿐인데
어제의 지난 일들은
모두 지워버려요

마틸다
울지 말아요
전화 끊지 말아요
멀지도 않은 곳인데
만날 수 없잖아요

그대여
지금 내 방엔
주인 잃은 찻잔이
고독의 먼지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마틸다
듣고 있나요
그대를 위해 비워 둔
의자와 식탁도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대여 돌아와 줘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두운 계단에 앉아
그대 기다리겠어요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이런 나를 보고
방황이라 하지 말아

쓸쓸한 나의 계절에
내 긴 그림자 뒤로 하고
마른잎이 부워지는 듯한
소리를 들으며
걸고 또 걷는 나를 보고
편한 말로다가
방황이라 하지 말아

따사로운 봄별도
내겐 쓸쓸한 가을처럼
스산해질 때 있고
화려하게 이글거리는
여름의 미친 듯한 태양열도
내겐 황량하게 서릴 때 있으니까

너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이런 나를 보고
그리움으로 여기지 말아
잊혀진 날들
과거의 날들

그러나 어슴프레한
너의 얼굴
너의 이름
이젠 습관 속에서
낙서처럼 쓰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미련이라 하지 말아

세월은
너를 속이고
나를 속이며 지나도
흘러버린 시간은
또한 망각의 세월인가

세월은 그렇게 흘러도
바로 어제의 일처럼
가슴에 남겨진 채
꿈틀꿈틀 살아 숨쉬니

이런 걸 보고
방황이라 하지 말아
이런 걸 보고
그리움이라 하지 말아

또한 이런 걸 보고
미련이라고도 하지 말아

불현듯 네 생각에
네 이름 부르며 걷곤 있지만

질서속의무질서무질서속의질서

네가무척궁금했어
내질서속의무질서였고
내무질서속의질서이기도했고
그리하여나를놀래킨너였으니까

색다른대화로말을시켜보고싶었지
신비한손을한번만져보고싶었지
천국처럼크게안아보고싶었지
지옥처럼뜨겁게입을맞추고싶었지

말을건네보았지
손을만져보았지
안아도보았고
입맞춤도했었지

색다른거나신비하거나
천국도지옥도아니었지만
나는이렇게용기있었던
내손이자랑스럽고
내입술이자랑스럽다

질서속의질서무질서속의무질서가아닌
나의질서속의무질서무질서속의질서

우린 서로 사랑해

예전엔
행복을 몰랐어요

어느날
우리가 함께라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소중함을 느꼈죠

결에만 있어도
좋았어요
가만히 눈감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 걸요

우린
서로 사랑해

하늘은
유난히 맑아지고
꽃들의
향기로 가득해요

사랑은
모두를 안아주며
큰 소리로 웃게 해

왈츠에 맞춰 춤을 춰요
천사같이 노래해요
두손을 잡고 마주봐요
우린
서로 사랑해

우린
서로 사랑해

그대 이름 앞에선

그대
젖은 눈으로 날
바라볼 때면
가슴 한곳에
비가 내리고

그대 야윈 손으로 날
어루만질 때
가슴 한곳에
촛불 타오르지만

사랑이란 무언가
하늘보다 더 귀해도
가까이엔 있지 못하고
마음에만 있는
그대여

긴 세월 동안 지쳐도
그리움은 더 커지고
그대의
이름 석자 앞에선
그저 슬픈 여자죠

그대
작은 소리로 날

불러줄 때면
가슴 한곳에
별이 쏟아지지만

사랑이란 무언가
하늘보다 더 귀해도
가까이엔 있지 못하고
마음에만 있는
그대여

긴 세월 동안 지쳐도
그리움은 더 커지고
그대의
이름 석자 앞에선
그저 슬픈 여자죠

아직은 어리지만

이럴 땐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까
너라면 나를
이해해줄 것 같았어
일기장에만
몰래 적어둔
가슴 떨리는 이야기까지

나 역시
말로써 표현할 수 없어도
널보면 웬지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우린 아직 어리니까
좋아한다고 말을 하자

이럴 때 어른들은
손을 잡지만
우리는 조용히 웃으면 될거야
우리도 잠시 후면
어른이 되지 —— 겨울만 가면

하지만
지금 말하겠어
사실은 널 사랑한다고

아직은 어리니까
그냥 웃지만
살며시 안아도 될거야
우리도 잠시 후면
어른이 되지 —— 겨울만 가면

하지만
지금 대답할께
영원히 널 사랑할거야

여행

언제나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다
이 사각의 도시 서울을

보이는 것은 모두가 콘크리트
바닥도 건물도
이러다간 하늘까지도
회색빛의 건물 한부분이
될 것만 같다

웃는 여성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진 그림이고
수퍼마켓에 진열된 상품처럼
사람들의 가슴은
점점 획일된 기준으로 변해간다
이 모든 것이 미워서
떠나고 싶어서 떠난다

서울특별시라는 특별한 도시를
떠나면
서울 아닌 도시는
또다시 특별한 도시처럼
늘 잠을 자고 있는 듯 고요하고
방금 물청소를 끝낸 듯한 거리와

푸르거나 혹은 벗은 나무들이
시선을 끈다

작은 식당에서 조촐히 놓여지는
반찬 그릇에도 정이 담겨 있고
사투리의 얼굴들도 정겹고
보도블럭 위로 굴러가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도
장난스럽게 보인다

숙소에 누워
이런 저런 생각을 해도 편하고
늦잠을 자도
마음이 편하다

그곳과 어울리지 않게
사치스레 꾸며 놓은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어울리지 않게 이 나이에 신청음악도
한번 적어본다

그렇게 이삼일 지나면
서서히 불안이 오고
회귀본능처럼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등지고
내 고향일 수밖에 없는
서울을 향한다

돌아오는 고속도로 연변에는
가을빛이 감도는 평화의 벌판
농부의 점점이 찍히는 모습이
그림이다
오길 잘했다고
감탄과 감탄을 하며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서울로 향하는 길은
끝도 없이 멀어된다

어둠이 내리는
시골 외딴집 굴뚝연기에서
저 먼 유년시절도 그린다

잠시 조는 사이 현란한 불빛이 보이는
서울 진입로

내가 떠날 때는
이게 싫어서였다
떠날 때는

이 그림들을 등진다는 게 좋았다
그러나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게 느껴지다니
나는 역시 평온한 그림 속에는
들어가 어울리지 않는가 보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불빛
그것도 사각의 아파트 촌에서
보여지는 불빛이
이렇게 반가워지다니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생기고
나는 곧바로
회색도시의 물결 속에서
끝도 없이 출렁거린다

그리곤 늘 불만하면서 살 것이다
이놈의 서울은
사람 못살 곳이니 여기를 떠나야만 해
단 며칠이라도 여행을 해야지
이렇게 복잡한 곳에선
그저 스트레스만 쌓인다니까 ——
하면서 말이다

회색빛 거리

말없이 돌아서는
그대의
허탈한 뒷모습 보며
안개 낀 거리에서
나는
회색빛 슬픔으로
우네

우리
헤어져야 하는지
다시 묻고 싶지만
그대 원한다면
떠나야 하네

오 그대
정말 떠나시나요
서늘한 눈길로 바라보니
빈 가슴으로 남겨진
내 모습만이 허전해
안개 자욱한
회색빛 거리

아득히
멀어지는 그대의
희미한 뒷모습 보며

어두운 가슴으로
나는
지나간 세월을 덮네

그대
떠나가는 이유가
모두 오해란 걸 알지만
그대 원한다면
보내드리리

오 그대
정말 떠나시나요
서늘한 눈길로 바라보니
빈 가슴으로 남겨진
내 모습만이 허전해
안개 자욱한
회색빛 거리
회색빛 거리

여름날의 풍경

만나자는
그 사람 전화 받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비춰보네

시원한 물빛
꽃무늬 옷에
납작한 샌들을 신고서
대문을 나서니

동네 꼬마들
울망줄망 병아리 떼처럼
고무줄 놀이랑
숨바꼭질하네

동네 골목은
도란도란 속삭이며
소꿉장난하는
천사들의 나라

산들바람
꽃향기 실어오고
맑은 하늘 눈이 부신
여름날

얼음 한 조각
입안에 넣고
발걸음 가볍게 걸으며
거리를 나서네

가로수에도
산들바람 불어
앞새 스치는
노래소리

마주치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나봐
콧노래를
부르고 있네

서로 다른 이유로

때아닌 비가
하루종일 내리던
저녁

우린 그렇고 그런
애길 끝으로 헤어졌지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핑계를 대며
다신 부딪치지도 말라며
그렇게 헤어졌지

어차피
우린 색깔이 달랐어
가슴 한켠에
서로 다른 하늘을
숨겨두고
푸른 하늘이 때로는 변하여
회색빛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알았어

지금은 하늘색이 잠시
변한 것일 뿐

넓은 건물도 예전처럼
그 자리에 있잖아

어차피
우린 떠나야 했어
가슴 깊숙이
서로 다른 이상을
숨겨두고
웃던 얼굴도 솔직해야 했어
헤어지는 걸
흔한 일로
생각하면 안되지

지금은 가슴속이 잠시
복잡하지만

우린
서로를 위해서도
헤어짐이 필요해

어느 한 순간에도

히탈한 미소로 바라보는
그대를 홀로 두고
떠나온 후에

처절한 아픔과 후회들이
지금껏 두고두고
내 가슴 아프게 해

헤어지자 말한 건
잘못이었어
이렇게 그대를
사랑하면서

어느날 잠시라도
만날 수는 없는 걸까
그리운 사람이여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잊는다고 말한 건
거짓이었어
한시라도 그대를
잊은 적 없어

나 살아서 숨쉬는 한
지울 수 없는 얼굴
그리운 사람이여
그대는
지금 어디에

눈물

누굴
기다린다는 것은
힘들고 괴로워

가슴으로 와서 흐르는
강물
고독한 시간들

그댈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

유리병에 담아 둔
마른 안개꽃처럼
목마른 이 시간들

그대의
사진을 볼 때면
내일을 위해서 비워 놓은
세월이
서럽게 빛을 잃어가니

그댈
원망하지는 않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난 세월보다
더 아프다 해도
나는
그댈 잊겠어요



안개 · 새벽비 그리고 고독

누구나 가끔은
고독을 느낀다지만
그대 곁에선 지금까지
고독하지 않았다

거리를 걸으면
가슴으로 밀려와 닿는
그대 모습을 지우기 위해
마구
달려도 보았다.

무관심

그대는
왜 외면하는가

이 가슴
가득히 출렁이다가
강물로 넘쳐흐르는
고통의 몸짓을

그대는
왜 듣고 있는가
이 영혼
공간에 버려진 채로
하늘에 대고 외치는
절규의 소리를

그대는
마음만 흔드는
비바람이었소?

고독한 눈빛으로
갈망하는
나

비록 지친 채로
나 쓰러져도
그댄
표정없이 바라보겠소?

안개 · 새벽비 그리고 고독

누구나 가끔은
고독을 느낀다지만
그대 곁에선 지금까지
고독하지 않았다

거리를 걸으면
가슴으로 밀려와 닿는
그대 모습을 지우기 위해
마구
달려도 보았다

가슴 시리고
외로움이 커도
그대 때문이라면 차라리
행복일지 몰라요

함께 걸던 길
비워둔 벤치에는
누군가 버린
찢어진 엽서 조각이 날린다

가슴 저리고
눈물이 고여도
그대 때문이라면 차라리
다행일지 몰라요

함께 걸던 길
낙엽진 계단에는
누군가 버린
찢어진 사진 조각이 밟힌다

안개가 번지는
가로등 불빛 아래
늙은 옷자락 적셔가며
그대를
그리워한다

새벽비 내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늙은 옷자락 적셔 가며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마지막 전화

너 떠나라고 내가 먼저 말했지
내 가슴 아프지만
아무 표정없이

그래 언제인가
네 마음을 알았어
그 고운 눈길도
나를 멀리했고

생일날
장미꽃을 잔뜩 안겨주던
조그만 카페에 앉아
과장된 몸짓으로
웃어 보이며
너 편하게 말한 거야
이젠 서로가
지워가면서 살자고

실은
오늘 일을
두려워도 했었지
넌 아주 소중하게
여겨왔으니까

생일날
촛불 켜고 입맞춤하던
조그만 카페에 앉아
서운한 내 기분을
애써 감추며
너 편하게 말한 거야
목이 메어와
너의 음성 들으니

실은
오늘 일을
후회하곤 있지만
널 아주 오래토록
기억할 거야

굳이 말로 하자면

전엔
그대 모습이
하도 아름다워서
그저 바라만 보아도
그 순간이
행복이었지

전엔
그대 눈빛이
하도 고와서
그저 들여다만 보아도
그 순간이
꿈만 같았지

그러던 어느날
새벽 안개 속에서
그대
발걸음 멈출 때
설핏
안아본 그 어깨
그건 슬픔이었지

그러던 어느날
새벽 빗길에서

그대
접은 우산을 펼 때
설핏
입맞춘 것
그건 잘못이었지

단지
내 생각이 짧았던 거야
굳이 말로 하자면
이런 말이 될까

꽃은
꽃으로 예쁠 때
향기로워도
꽃이
향수로 만들어지면
그건
꽃도 향수도 아닌
냄새일 뿐이라고

모두가
새벽 때문이었지

그저 친구라는 이유로

웬지 몰라
혼자일 땐 네 모습 자꾸 떠올라
그저 오랜 친구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지우려고 눈을 감아도
온종일 네 모습이
깜짝놀라 눈을 뜨면
거울 속에 있어

너는 모를 거야
이런 느낌을 설명하기 힘들어
그저 우리는
친구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를 보면
웬일인지 가슴이 서늘해
사랑이란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데

소리내어 웃어봐도
온종일 네 생각뿐
하늘 보면 잊혀질까
그래도 아니야

나도 몰래 눈물이 나와
단지
그것뿐이야

지금부터 우리는
친구라고 말할 수 없잖아

마음으로 사랑해

보고싶다고
자주 말을 하지만
난 알고 있어
그대의 깊은 마음

많이 들어도
기분좋은 말인데
사랑한단 말엔
웬지 싫어져

그래서
사랑은 어려워
마음과는 반대로 해야 하니까

미워하는 체
눈을 흘겨도
마음으로 사랑해

좋아한다는
말도 자주 하지만
그런 말 하면
서로 부끄러워

그래서

사랑은 어려워
가슴속에 숨겨야 하니까

관심없는 체
고개는 돌려도
마음으로 사랑해

시 같은 사랑

우리가 헤어진다고
무엇이 변하나
어차피 우리
언젠간 만나게 될텐데

살다보니
진정한 이별은 없더군요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다가는 또 만나지

남들이 들을 때엔
싫은 말만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시 같은 사랑이

오늘밤에 다시 만나
또다시 헤어져도
영원한 이별이라곤
생각말아요

우리가 헤어졌다고
무엇이 변했나

이렇게
우린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희뿌연
새벽 하늘 원망하며
또다시 헤어져도
언젠간
또 만나지

사랑의 종말을 위한 독백

어색한 몸짓으로
웃으며
애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그러나
옛날의 우리
츄고
가난하던 시절
아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할 수 있었지

사랑을 확인한 것은
정말 아니었어
때론
이게 사랑일까봐
두려워도 했으니까

사랑이란 것보다
더 큰 말을 몰라서
작은 내 가슴만

미워했던 날들이
더 많았어

하지만 어쩌겠나
지금 두 사람에게겐
이미
알고 있듯이
사랑이 전부는 아니야

제제 · 1

겨울 하늘은
참 차가와도 보이지요
그 하늘에 매달린 듯한
푸른 빛이 감도는
별들은
당신의 마음처럼이나
차가운 빛을
발산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다가 내가
죽는다 해도

당신은 저 별처럼이나
냉랭한 빛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며
오래오래
하늘에 존재하겠지요

그래도 나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별을 원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푸른 빛이 감도는
별들을요

왜라고는 말할 수 없군요
단지 지금 내가
당신을 원망하는 것만큼
바보스런 짓이 없다는 것 외에는요
당신을 원망한다는 건
나를 원망하는 것이기도 하니
아직은
당신이 원망스러운 것만큼
나를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의 내가
썩 사랑스럽진 않아도
지금의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가
아직은 그다지
몹시 않아서지요

그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나의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믿고 싶으니까요

어느날 내가
그리움에 지쳐
그 세월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
결국
늙어 죽어버릴지라도

당신은
늘 젊은 모습으로
겨울하늘의 별처럼이나
푸른 빛이 도는
냉랭한 빛으로
영원히 하늘에만 존재하겠지요

차라리 그래 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당신이 오래 살고
오래오래 나를 기억하여
내려다 봐 주어야 하니까요

이 겨울은
실지 온도보다도
훨씬 많이 춥습니다
손도 시리지 않은데
바람도 차지 않은데
그 별빛으로도
이렇게 추운 걸까요?

이제 얘기지만
당신을 알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따뜻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제 · 2

이제는 구태여
우리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기로 합시다
아니 그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랑은 때때로
무한한 동경이지만
사랑은 때때로
무한한 실망과 좌절로
힘없는 나를
자꾸만 무너지게 하므로
사랑보다는 차라리
단순한 추억으로
당신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구실로
사랑보다 더 커다란 것을 나는
잃고, 버리고
그러곤 후회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사랑한다는 말은 많기로 합시다
아니 그보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긴
당신은 한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준 기억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쁜 종이를 보면
당신의 이름이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편지가 쓰고 싶어집니다
편지를 쓰기 위하여
그 종이를 펴 놓으면 또
늘 같은 얘기
같은 물음
같은 대답으로
시작과 끝이
또 같아집니다

한번 견뎌볼까 마음먹고
그 길다랗게 쓴 내 마음의 것들을
모두 지워도 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여러번의 행위에도
어찌 하얗게 지워지지 않는지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들여다 보고 앉았으려면
거울에 비춰지는 내 얼굴에는
그리움으로 가득한
그늘만이 보입니다

그리움을 단지 그리움으로
오래도록 가슴으로만
간직하지 못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제발 도와달라는 듯이
하소연하고 말았으니

결국은 내게로 돌아와
피부 깊숙히
그리고

가슴을 온통 채우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아 나는
그리움 하나도
비밀스럽게 간직하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움이
비밀스레 존재할 땐 그래도
그리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으로
행복하기도 했건만
이제 남은 것도 없고
그보다
나 혼자만의 것이
아무 것도 없어서 속이 상하고
이렇게 빈껍질뿐인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허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울 속엔
당신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매일밤 커피를 마시며

매일밤 커피를 마시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니

언제나
새로운 미소로 떠오르는
너의 모습이야

날 위해서
많은 걸 주어도
괜시리 투정을 부리고
서럽게 만들던 그때가
하나 둘 생각이 나서

넌 항상 편안한
누나같았지
그때는 그게 싫었어
포근히 널
안아주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까

네가 미운 건 아니었어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지
슬플 땐

너도 울 줄 아는지
궁금했으니까
그땐 미안했어
널 이해해줘

사실은
오직 너뿐이야
그동안 얼마나 널
찾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널
꼭 안아줄 수 있어
정말 사랑해
널 용서해 줘

사랑의 아픔

바람에 흔들리는
잎처럼
가슴으로 울지만

어쩌다
그대 팔에 안기면
서러워도
웃었어

그대의
쓸쓸히 돌아가는
뒷모습이
가슴 아프고
싫어서
잊으려고도 했건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게 쉽지 않았어

무슨 인연에
달빛 아래서
가슴 아픈
사랑을 하나

서러움이야
꽃잎처럼 너울거리고
눈물은
출렁이는 강물이 되지만

그대
그림자로 남겨진다면
고독쯤이야
견딜 수 있어

사랑도 세월이 흐르면

나를 보던
어제 그 눈길
왜 그다지 차갑던가요

잊혀질까 두려워했던
그 사람인데

어찌
나를 몰라보나요
알면서도 외면했나요

저만치서 발길 멈추다
사라진 당신

우연히라도 만나기를
얼마나 바래왔던가
언젠간 만날 생각에
방황했던 내가 싫어

사랑이란 게 이런가봐
수없이 반복되는 후회뿐
마른잎이 떨어지는 이 밤
나는 왜 우나

나를 보던
어제 그 눈빛
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만치서 뒤돌아보다
사라진 당신

내 모습 달라졌죠
당신도 변했더군요
지금껏 당신 생각에
거울보던 내가 미워

사랑이란
세월 가도 여전히
아픔으로 남을 뿐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 밤
나는 왜 우나

한 여자

한 여자가 오랫동안 나를
증오했답니다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른 채
나는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잘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데요

사랑을 잃고
잃은 것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내가 해매고 있을 때
그 여자는 내가 잃었다고 여기는
그 사랑을 빼앗았고
그 사랑의 영혼마저 빼앗지 못해
나를 증오했겠지요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른 채
멍청히 살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을 했을까요
그런 시간에
나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설겅이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거나
공연히 도마 위에서 손을 베었거나
잘 걸다가 넘어져서 구두철이 벗겨졌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지갑을 빼앗겨
나를 화나게 했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그 여자의 존재도
기억 않고 살고 있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그 여자의 사랑을 탐내지도 않았고
그 여자의 자리를 부러워도 않았고
그 여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엉뚱하게 증오를 받아왔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그 여자를 모르거든요

아마
비오는 거리에서
그 여자가 우산 없이 걷고 있었다면
내가 얼른 우산을 씌어 주었을 것이고
장거리 여행길에서
기차 옆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들여다보던 스포츠신문이라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혼자만 손해보고 살지요
그런데 그 여자도 지금은
나만큼 허전한 삶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떠나도 좋다

하긴 이미 떠난 것과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나는
너를 보내려 한다
오래오래 붙들어 둔다 한들
내가 얻는 것도 없이
너만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전엔 너를 부러워했다
너의 주위를 맴돌며
너를 기억에서 지우지 않는
내가 당연했고
내 기억 속에
네가 있다는 것에서
난 너를 부러워했다

너는 나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미안해 했고
나는 그 미안함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모르게 멍에를 씌우고
그것도 느끼지 못하며 부러워했고
너를 잊지 않고 있는 내가 있음이
너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다

내가 너를 자랑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아픔으로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나 정말 너에게 미안해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사랑한다고 했지만
이게 사랑이 아니었을 건데

이제라도 나는 너를 놓아주고 싶어
이미 가버린 너이지만
정말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놓아줄게
네가 내게서 떠났다고 여기지 말어
그럴수록 너는 또다른 생각으로
내게 상처를 남겼다고
더 아파할지도 모르니까

우린 다시금 만나는 게
없었어야 했다
널 위해 비워둔 자리란 없었다
어쩌다 보니 비어 있었던 것이지
나를 가엾어 하지도 말어
나는 이런 상태가 편안하니까

이제는 속으로만 너를 추억할 것이다
너무도 오랫동안 집요하리만치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굴레를 씌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은 눈물이었다
하지만 너 그리워 흘린 눈물은
값진 것이었고
긴 세월 동안 나로 인해
힘들어 했을 너를
이젠 웃으며 보낼 수 있다
기억에만 남겨두기로 했다

안녕이라는 말도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스쳐가는 사람처럼 해줄테니까
우린 왜 이리 미묘한 관계일까
너를 좋아했다는 것 하나로
사랑을 논하고
이별을 해석하고
망각을 펼쳐야 하니
그래도 한마디
사랑하지만 미안했어요

떠나는 그대에게

아무말도 말아요
떠나는 그대여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보내드리겠어요

우리가 만났던 게
소중한 것이지
사랑하다 헤어진다고
변한 건 아니니까요

가슴이 찡고
외로워질 때
거리에 나서면
우리
만나게 될까요

그대
서러웠던 건
모두 잊어버리고
기뻐했던 일만 기억해요

우리
베푼 사랑은
모두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기억해요



미안한 고백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충실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내게서
떠나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하루라도 바라보면서
저나 저리만치 사랑의 의미를
갖다 붙여 놓는 나를
당신은 어떻게 느꼈으며
그러한 나를 당신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무제

안정효 선생의 글을 읽으면
가슴이 메어 답답해지고
리·오스카의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메어 답답해지고
독한 위스키 한병을 다 비우면
가슴이 메어 답답해진다
그런데도 나는 매일
안정효 선생을 읽고
리·오스카를 듣고
독한 위스키를 마신다
책과
하모니카와
알콜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열병 · 1

나 자신이 미워질 때가 많다
아니 이런 현상을 말하여
미움이라는 표현을
빌리는 것도
타당치 않을 것이다
워랄까 ……?

그런대로 여태까지는
잘 살아온 것도 같은데
어째 요즘에 와서는
자주 나를 잊고
감정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성이 흐트러지고
마음을 숨기지도 못하고
인내하지도 못하는지
속상하고 수치스럽고 괴롭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고
어느 한순간
눈앞이 아른거리는
현기증도 느껴지니 말이다

내게
감정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땐
나도 생명체란 사실을 알지만
새삼스레 이제와서
현명함을 잃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될 때의 괴로움은 크다

항상 내가 그래왔듯이
심사숙고한 후에 선택할 줄 모르고
어느 순간에 매료되어
혼란을 맛본다
나를 드러내고
공연히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싶어지고
그러면서도 사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의 표정을 보면 눈이 시려와
눈길을 돌리고 말지만
마음의 눈은
그의 표정을 살핀다
내 그런 행동이
들켜버리지는 않았나 하여 근심하고
들켜버린 것 같아 더욱 혼란해진다

때론 그런 대상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소녀처럼 얼굴이 달아오르지만
누구에겐가 고마워도 진다
그는 나를 모르겠지만
가끔씩 보게 되는 그가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에서
기쁨과 가슴 설레임이 있다

이쯤에서 기분을
환기시켜야 할텐데
이 어리석은 여자에게는
그 또한 쉽지가 않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를 가라앉히고 그저
아름다운 마음으로
넓은 의미로 사랑해야 하는데
대체 나는 무얼 어떻게 생각하며
또한 말초적인 쾌락을
원하는 건 아닌지
두렵고 괴롭고
그래서 내가 밉다

나는 몽상가이며

비현실적인 사람일까?
혹시라도 타인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리 비추어졌다면 나는 이미
나를 잃어버린 것일까?

입버릇처럼
나는 나대로 산다고 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
왜 사람들은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민감해져야 하는지
항상 남을 의식해야만 하고
대단히 도도한 척하면서
감추어야만 한다고 하는지
고백처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열병

아주 오래 전에
가슴 설레이는 사랑을 했고
(남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그리곤 이별도 맛보았지만

그게 벌써 십년도 넘었고
이십년을 바라보고 있으니
나는 참으로
허전하게 살아온 셈이 된다

겉으로 많이 웃고
외로움 그 자체를 즐기고 산다고
떠들지만
솔직히 내가 외로움을
얼마나 즐기고 살아왔는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외로움은 가끔씩 나를
정서적인 면에서
병균처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강인한 척하기를
좋아했을 뿐
실은 난 아주 허약한 여자다
작은 일에도 가슴 아파 잠 못 들고
상처받고 돌아서서 울기도 잘하는
나를
남들은 잘 알지 못한다
보호받기 좋아하고
곁에서 부드러운 말투로 역성들어 주고

격려해 주길 은근히 바라고
내 편만 들어 토닥거려 주는 걸
아주 좋아한다

지금의 내 입장을 볼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늘 영양부족처럼 사랑의 결핍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죽어간다
몇몇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곁에 서 있어 줄 사람은 없다

밤새도록 재미있는 얘기로
말동무 해주며 나를 즐겁게 해주고
순수하게 웃고 자넌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욕심을 부린다
그래,
나는 또 얼마나 욕심이 많은
여자인가?
그가 나하고만 많은 대화를
나누어 주길 바라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반드시 내 옆에만 앉아 주어야
기분이 좋고
나는 가끔 속으로 점을 친다
..... 가까이로 올 것이다

그 점괘는 거의 맞아들어 갔고
실현되지 않을 때면
가슴속이 서늘해진다
숨기려 해도 그 감정은 분노처럼
얼굴로 나타난다
나는 어째서
그를 느끼게 되었을까?
아마도 작은 호의에 감동 받았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보호받기 좋아하는
내 꿈틀거리는 본능이
작용했을 것이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거꾸로 말하면 작은 것에서
감동받기 잘하는 내 허점을
그는 자연스럽게 겨냥한 격이다

나이가 사십이 넘은 여자의 열병이
고작 이런 것이라니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보면
그냥 좋아 웃고
우연히 옷깃이 닿을 때
나는 분명히 듣는다
내부에서 부쉬지는 풍랑소리를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 얼굴이 떠나지 않아
숨이 멎을 것 같다
남들과는 다를 것 같고
생각도 깊을 것 같고
나를 많이 들여다보았을 그는
어느 순간
내게 특별한 존재로
다가와 선 것이다

하루종일 그의 음성이
내 귓가를
떠나지 않고
나를 미소짓게 해주고

우울하게도 해주며
미치도록 보고 싶게도 한다
벌떡 일어나
찬물로 샤워를 하고
냉수를 마시지만
정신이 맑아지는 대신
곧 눈물이 고인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림자처럼 내게 붙어다니는
그의 영상이 내 수호신처럼
내 방 전체를 감싸주는 것이다
벽에서도
천장에서도
그리고 내 옆에서도
함께 숨쉬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언젠가는 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잃어버린 나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이밤
음악을 듣는다

열병 · 2

雨期에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모양이다
우울해지는 것 외에도
무언가 허전하고 그리워지고
한없이 불안해지는 것이다
앉아어도 불안하고
누워봐도 불안하다
새삼 혼자라는 것이 불안하고
뭔가를 밖에 홀리고 들어온 것 같아
또다시 불안해진다
비를 워낙 싫어해서일까?

누군가 벨을 울리고
기분 좋게 방문해 주었으면 하고
신경을 곤두세워도 본다
환상처럼 그의 멧적은 미소가
눈앞을 아른거리고
미끌거리는 듯한 특이한 그의
음성이 귓가를 간지럽힌다

빗물이 들이칠 것 같아
창을 닫았다 열었다를 거듭하며
손바닥만한 방을
불과 서너 걸음의 면적인데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다

방걸레질을 하기도 하고
커피를 한잔 가득 타놓고도
뜨전을 부리느라 잊고 나선
이미 식어버린 걸 훌쩍 마신다
불안의 시초는 무엇이었을까?
그냥 정서불안?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
갈등이 생기고 혼란해질 뿐이지

하지만 이 또한
내 나름대로의 척도에 맞춰 놓으면
내 기준으로는 다 지극히 정상이다
그저 보면 즐겁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뭐든지 그를 위해서 줄 게 없나
두리번거리며 찾는 나
그러나 선택하고 선택되어질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란 것이
내겐 불행이고 그에겐 불편일 거다
그저
나를 기피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니 그가

나를 기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나를 못 느끼니까
무엇을 바랄 것인가
없다
내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만
즐기면 된다
멀지만 가깝고
가깝지만 무척 멀다

그런 사람에게 감정의 눈을 뜨고
열병을 앓고 있으니 나는
불치의 병을 앓는 것이다

아닌 것은 빨리 체념할 줄 아는
내가 아니므로 나는 갈등한다
공연한 고민과 갈등으로
혼자서 열병을 앓고
혼자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막연한 그리움으로 내가 부끄럽다
그가 좋아진 이유를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될까봐 처음부터 이미
두려워했었다

아니다 아니다를 수없이 되뇌이며
나의 감정을 무시해 버렸고
착각일 것이라고
그 감정의 근원을 삭제해 버리려는
노력도 꽤나 많이 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이르렀다
이러면 안되는데도
몇몇의 순간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의도적으로 다가서는 것 같음을
의식할 때의 당혹함을 지나
나중엔 그래주길 바랬고
어느날 어두운 찻집에서 함께 있을 때를
나는 기억한다
이상한 것은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의 눈을 바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자꾸 눈길을 다른 쪽으로 돌리며
별로 애깃거리도 찾지 못한 채
말까지 더듬거렸다

어쩌면 바로 그날이 없었어야
그와는 오래오래
자연스러울 수 있었을지 모른다
최후의 자존심까지
몽땅 들켜버린 것 같다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까?
단지 생활의 활력소나
윤희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만 기뻐하자
더운 여름날의 청량음료처럼
달콤하고 시원하게만 목을 축이자
청량음료수는 배부르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자주 마셔서도 안 좋다
감칠맛을 내는 이슬비처럼
가볍게 받아들이자

여름의 의미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을의 공기
신선하고
여름부터 모아둔
향아리 가득한 갈대 선들거리는
이제부터
서서히 준비해야만 할 겨울

겨울이나
봄을 맞을 때마다
나는 여름을 학수고대했었다
몇 해에 걸쳐서
여름에만 받아온 선물은
일년 내내 나의 위로였었다

허나
작년 여름도 그랬고
이번 여름도 그랬고
여름은
내게 주던 의미를 저버렸다
내가 기대하던 여름은
이미 없어진 것일까?

기실
꼭 여름이 아니어도 좋았는데...

봄도 있고
가을도,
겨울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고 보니 나는
그 사람을 잊어준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나고만 싶어했다

내가 그를
유쾌히 보낼 생각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여름에 받던 선물 역시
과감히 사양하고
뿌리칠 줄은 알아야 했다

하여
여름이란 광기 있는 태양열만
존재한다고 믿고
여름을 증오하기로 하자
여름에
특별한 의미가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말해서
나는 계절상의 여름은
싫어하지 않았는가?

여름은 너무도 뜨거워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미쳐버린다
작열하는 태양을 믿고
거리에서건 직장에서건
온몸을 드러낼 듯한 옷차림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짧은 반바지
드러낸 가슴과 어깨
맨발이어야 유행이라는
그 모습들을
관용으로나마 참고 보아왔던
나

이제는 관용조차 아까운
미쳐버리는 여름을
실컷 증오하기로 하자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여름은 없고
내 영혼 속에 남겨져 있는
뜨겁지만 아름다운 그 여름만을
간직할 뿐이다

지금은 가을
덧없이 흘러가버린 시간들

이 신선한 가을바람은
들뺏던 어제를 잠재우고
머리속의 혼란을
씻어준다

늦은 밤
작은 방을 은은히 감싸주는
빛깔없는 램프 두 개와
「Jesse」를 부르며 흐느끼는
쉰 목소리의
「로버타·플랙」의 음률로
충분한 휴식시간

울창한 숲을 연상시키는
한 무더기의 갈대가 출렁거리고
여름을 기다리느라 수고했던
내 머리맡에는
은하처럼 아름다운 추억의
그윽함이 가라앉는다

여름이여 아듀—

눈과 입

앞을 못보는 사람과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만났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사랑했고
앞을 못보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을 연민했다

서로 같은 시간에 思考를 하고
서로 같은 가슴으로
안타까워 하지만
그 둘은
기차길의 레일처럼
항상 평행선 위에 서서
서로를 사랑하는지도
서로를 연민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세월을 지탱시켰다

세월은 좀처럼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길어지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표시가 나고 느껴도 진다

그렇게 자란 손톱이나 머리카락은
알맞은 길이로 잘려서 없어지지만

달력을 뜯어낸 자국처럼
표시가 남지 않는 세월은
각자의 가슴에
원하건 원치 않건 기동처럼 선 채
서로를
때론 원망하고
때론 갈망하며
소리내지 않고 물을 주고
무언(無言)의 대화를 주고 받으며
키워 나간다
행여라도
쉽게 시들어 쓰러질 식물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과
앞을 못보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고 연민하고 아니면
만남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 둘의 만남은
오랜 시간 동안
가슴 답답한 일일 뿐이지
추억조차도 추억답지 못하고
단지 과거의 비밀스런 것처럼
가슴을 옥죄는 것일는지 모른다

자-
지금부터라도
다시 생각한다면
앞을 못보는 사람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야겠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연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눈과 입은 또한 무엇인가

홍청이는 쾌락의 물결을 보고
사악한 말장난을 하는
우리들 모두의
눈과 입은
이미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침묵할 수 있는 눈과
용납할 수 있는 입이

나는 벌써
옛날부터 우리에게 없음을 알았다
추상적인 것인가
눈과 입이란 것이…?

가을여행

지금은 이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고 떠나리라
마음먹었지

그곳이 어디라곤
말할 수 없지만
무언가
멋진 일이 생길 것 같아

난 눈을 감으면
새소리가 들려와
너도 들리잖니
가랑잎이 우는 소리
이젠
우린 함께 떠나자

알 수 없는 곳으로
거기도 노을빛은
똑같은 거야

난 너를 만나면
어디론가 가고 싶어

너도 그렇잖니
낙엽 쌓인 어느 시골
이젠
우리 함께 떠나자
그림 같은 신작로
거기도 가을빛은
똑같은 거야

초겨울

찢어진 포스터
낮익은 연극배우의 진한 분장이
서글픈 계절

황하니 부는 찬바람
코트깃을 잔뜩 세우고
홀로 걷는
여인의 뒷모습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표정
한결같이 우울해 보인다
다들 계절을 타는가

처절하리 만큼
가슴 밑바닥까지 파헤치는
첼로의 절규

탁자 위에 놓여진 찻잔엔
그리움이 하나 둘 떨어지는 밤
고독이란 병은
계절과는 무관한 듯
사철을 그림자처럼 붙어다닌다

내 가장 좋아하는
초겨울은 아직 삭막하지 않은
시기라서 아름답다

이런 때
비라도 내려준다면
훨씬 운치가 더할텐데

초겨울에 느끼는 감상은
몇몇의 관객뿐인 연극무대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첼로
한층 맛을 더해주는 진한 커피의
향내에 있다

잊고 지내던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고
이미 떠나가신
내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진다

이제 곧 겨울이 되겠지
이번 겨울은 또 얼마나 황량할지
가난한 자의 겨울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겨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기왕 추운 계절
겨울비가 그립다

나는 또 겨울을
해매겠지

휴일

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이다
매일을 휴일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휴일만큼은
거리를 나가는 일도
가능하면 만들지 않고
내 방식대로 철저히 휴일을 즐긴다

오히려 평소보다 일찌감치 일어나서
간단히 빨래를 끝내고
아침 T·V프로그램 중
「장학퀴즈」나 「코스비 가족」을 보거나
만화영화 「키다리 아저씨」를 본다

잠시 T·V를 끄고
읽다 덮어둔 책들을 뒤적인다
그러다보면
정오쯤 되고 간단히 식사를 한다
그릇 두어개를 설겅이하고
멀리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는
원탁의 유리를 반들거리게 닦아 놓고
술을 마신다

값이 좀 나가는 양주면 더 좋고
그냥저냥한 맥주도 좋지만
쌔직한 소주라도 좋다

얼음 가득 넣은 유리컵에
따라 부은 술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나를 위로하고
나는 그 술병에 기댄다

괜찮은 친구인 술은
혼자 마실수록 좋고
혼자 집에서 마시는 술은
알콜중독이라는 말을
상기시킨다
중독이란 말은
별로 재미없는 말이지만...

술은 나를 참견하지 않는다
나를 베풀어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대신하여 울어도 주고
나 취한 만큼 취해 주기도 한다

이러니

중독이란 말은 불필요해도
중독에 가까울지 모를 나를
벗해줄 게 있어서
편안한 휴일이다

마시고 난 술병은

쓰레기통에 부끄러이 떨어지지만
마시는 시간 동안의 술병은
내 벗은 몸을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친구가 된다

문득 나는 생각한다

기실 벗은 몸을 보일 수 있을 만큼
친한 친구가 있나 하고

휴일은

단어가 말해주듯이
평일보다 느긋하고
평일보다 훨씬 내 감정대로
무어든 할 수 있는 날이어서 좋다

물론

손바닥만한 공간이지만
혼자서 마셔도 불편 없는 술과
혼자이기에 더 좋은 음악들
트럼펫을 불기 위하여 태어났다가
얼마 전에 생을 마친
「마일즈·데이비스」나
「디지·길리스피」를 즐긴다

음악은 아무래도
커피맛을 연상시키는
갈색 톤의 윤기나는 피부
블루스나 소울의 블랙뮤직이 좋다

음반이 있었으면 좋았을
「지미·캐스터·번치」의
‘A Whiter Shade of Pale’이나
우리말로 표현이 어려운
「디온·어웁」의
「Dé Já Vu」가 듣고 싶다

휴일은
이래서 좋은 날이다

미안한 고백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충실해 주었으면 했습니다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내게서
떠나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당신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지나치리만치 사랑의 의미를
갖다 붙여 놓는 나를
당신은 어떻게 느꼈으며
그러한 나를 당신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 사랑해가며
술하게 많은
글장난을 하고
말장난을 하고
결국 말도 안되는 소리로
사랑 그 자체를
마음의 장난으로 돌려야만 하다니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속의 그 사랑
그렇다고 당신을 원망할 수도 없지만
내가 나를 원망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던
나였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놀라시나요

당신에겐 좀 미안한 고백이 되겠지요
그래도
이 말을 하고 나니
오랜 세월 동안의 불만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지금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내게 친절해 주었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애초부터 어긋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전부도 아니었고
아무 것도 아닌 것 역시 아니었고
그저 일부일 뿐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히 떨어져 널 만한
냉정함이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 시간이 온 것은
정말 다행이고 중요합니다
나를 속이며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속이며 나를 사랑하는
모자라는 듯한 행동을
더 이상 하여서는 안된다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아니까요

당신과의 사랑 감정들은
남들이 말하는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정신적 사랑은 숭고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숭고함에 어울리지도 않고
사랑 그 자체를 신봉해 왔지만
사랑 역시 감각없이 흩어져
나를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버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질테고
텅빈 가슴이 되어
실컷 울어버리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버리는 당신의 기억이
당신을 서운하게 하겠지만
그 작은 서운함까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당신의 서운함보다
무엇으로도 환산되지 않는
그간의 세월과 내 정성의 무게와
질량은 어찌구요?

나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예기치 못했을 나의 고백에
당신은 분노하겠지만
내가 껍이나 행복한 건 아닙니다
서로의 가슴 귀퉁이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추억까지도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젠 남은 것이 없습니다

보석보다 화려한 예술 사랑



커튼을 젖힌다. 밖에는 탐스런 함박눈이 꽃잎처럼 흩날리고, 마당의 보도블럭 위로 내려앉는 흩날린 눈송이가 금새 두아 눈물로 변하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건날밤에 쓴 편지를 봉투에 밀어넣고 풀을 발랐다. 급할 것은 없지만 나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이 있기에 추워서 동동거리며 겨울과는 어울리시 않게 우산을 받쳐들고 우체국을 향했다.

제세 ~.

한번도 그의 앞에선 소리내어 불러본 적이 없지만 편지에 서는 수백번도 더 써본 이름. 나는 그의 이름을 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른 어떤 글씨보다 예쁘게 써진다는 편지를 받고, 십오륙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거리낄 것 없이 사랑할 자유가 있음을 행복으로 안다. 첫번째 사랑을 느꼈던 사람이란 이유에서 그럴까?

그는 내 스물 셋의 젊은 영혼을 다비시켰던 사람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시기, 지구 어디에 신가 예고도 없이 나타나 하얗게 웃던 사람. 그는 나에게 첫 사랑이었다.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남자.

사람은 우연하게 누군가와 만나게 된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것은 없다지만 어쨌든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렇게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전생에 수천번의 만남이 있었던 인연이라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나는 또 그 사람과 전생에 어떤 만남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십오륙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없을 테니까.

사람의 감정은 변하는 것이고 자신이 변하지 않으려 노력을 해도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아하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지만 좋은 사람은 어떤 실수가 있어도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눈에 보인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보여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선다. 싫은 사람은 앓는 자세까지도 보기 싫은 것이다. 벌레가 스물스물 몸 위로 기어가는 것처럼 징그럽고 그 시선이 몸에 닿으면 독충에 쏘인 것 이상으로 불쾌하다. 사랑은 이래서 무한한 힘이 있고, 사랑은 손익계산을 하지도 않는다. 만남 그 자체가 감동인 것이다.

내가 처음 그를 알았을 때에는 내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남자친구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연인이나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그렇기에 그에 관해서 이것저것 물을 것도 없었고, 또한 어떠한 기대라든가 그의 나에 대한 느낌 따위의 속마음을 궁금해 하지도 않았었다. 단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었다.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어느날부터가 단지 만나면 즐겁고 기쁜 느낌을 지나서 가슴 한곳에서부터 사랑의 감정이 싹터움을 알았다. 감히 입밖에 낼 수 없는 비밀처럼 속으로만 감추었지만 그 내부의 감정은 비밀이 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차 고개를 들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맹목적으로 만났고 흔히 말하듯이 연인사이도 아니었으며, 어떤 약속도 없었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 불문율을 깬 것 같아 미안했고 반칙을 한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러다보니 그의 앞에서는 점점 의도적으로 감성 표출을 삼가했고 나도 모르는 반대되는 표현만 하게 되었다. 반가움도 감히 드러낼 수 없어 거꾸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뿐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하는 것 같았고 사랑의 표현이 없는 우리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



을 때에야 비로소 안타까와 했지만 끝내 바보들은 어처구니 없이 헤어지고 말았다.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라 했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억이 빛을 더해 아름다움으로 남겨지는 것일까?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을 잊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들던 음악과 그때 걸치던 옷사라에 스며있는 추억들을 잊어야 한다는 것이 이별의 아픔일지 모른다.

그는 훌쩍 한국을 떠났고 다시는 그를 만날 수 없음에 나는 절망했었다. 그때는 절망이라기 보다는 죽음이었고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그를 잊고 포기하며 살 수 없을 것 같아 매일 울었었다. 원망스러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원망하기 보다는 한가닥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싶었었다. 길에서라도 한번쯤 부딪치길 바랬지만 그런 우연은 생기지 않았다.

사랑이란 말처럼 고운 단어는 없는데도 우리들은 남발되는 '사랑' 때문에 값이 떨어짐을 느끼고, 게다가 '첫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도 진부해서 요즘 세대에서는 웬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만큼 현실감이 없기도 하다.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대체 무얼 의미하는 것인가. 결혼하는 것?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에까지 이룬다면 그 얼마나 값진 결실인가? 그런 내외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사랑의 마술사인 것 같아 감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내가 사랑의 추억만으로 늘 그리워하며 십수년이 지난 어느 더운 여름날 우리는 거짓말처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기다림의 보람이라 하기엔 너무도 커다란 기쁨으로 나를 들뜨

게 했던 재회.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만난 사람처럼 편안한 가슴으로 마주 앉았을 때엔 역시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에게 선택된 우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없는 먼 곳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우리들은 독신이라는 짐이 일지되고, 일년에 한번인 여름휴가 때 한국에 와주니 계속되는 기다림에 싫증이 나지만 예전처럼 십수년의 막연한 기다림에 비교할 때 이것은 기다림도 아니었다.

우리의 첫사랑은 어찌볼 때 특이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사랑은 이미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다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어찌면 내 스물 셋의 나이에서부터 사십의 문턱에 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무척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어떤 약속이 없었던 듯이 우리 그 순수하고 젊었던 시절의 싱그런 가슴으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를 그리워한다.

우산으로 눈발을 피하며 우체국에 이르기까지 온통 그의 상념으로 걷는 것은 출근해도 행복이라 느끼고 싶다.

나의 첫사랑은 지금의 사랑이고 또 내일의 사랑이며, 끝이나도 안되며 끝내서도 안된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의 목숨이 다하기 전까지 우리 서로 그리운 가슴으로 마주보며 서 있을 것이다.

사랑은 슬픔 자체도 아름답게 하는 예술이며 보석보다도 화려한 광채를 뿜어낸다.

김미선

1952년 서울 출생

상명여자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학년 때
「ONIONS」의 '편지'로 작사 활동 시작

1981년 「Robert Louis Stevenson」의
동시집 'A Child's Garden of Verse' 번역

소담 시인·5

편지 Ⅲ

2관1쇄 인쇄/1994년 6월 10일

2관1쇄 발행/1994년 6월 17일

지은이/김미선

발행인/이태권

미 술/양진희

발행처/소담출판사

등록번호/제2-42호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36번지

전화/927-2831

팩스/924-3236

값 3,000원

© 김미선, 1994

* 파본 및 잘못된 책을 바꾸어 드립니다.

ISBN 89-7381-068-5 33810

내가 출판기획자라면?

어떠한 의견도 소중히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꼼꼼히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채택된 의견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소담가족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만듭니다.

우 편 영 서

보내는 사람

| | | | | | | |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

소담가족 담당자 앞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36번지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136-044

구입하신 책명

이 책을 선택한 이유

- * ()에 난 광고를 보고
- * 주위의 ()로부터 소개
- * 신문, 사보, 잡지 등의 신간안내를 보고
- * 서점에서 (표지/제목/내용이) 눈에 띄어서

이 책의 느낌

- * 책의 내용이 (아주 좋다/ 그저 그렇다/ 잘 나타내지 못했다)
- * 책의 표지 및 꾸밈새가 (아주 잘 되었다/ 무난하다/ 잘못되었다)
- * 책값이 (적절하다/ 싼 편이다/ 비싸다)

좋아하는 작가

앞으로 출판되기를 바라는 책, 또는 저자

소담출판사에 주고 싶은 말

이름

주소

직업 (직장·학교)

나이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팩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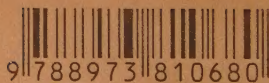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한데 모아 이렇듯은 책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과 마음이 담긴 책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맑고 투명할 것입니다.
소담기적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소담이 꾸미는 특별한 일들을 항상 함께 하고자 합니다.

소담 기록

자르는 선

그대여 듣고 있나요
어찌 대답 없나요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틸다
지금 나에겐
당신 생각뿐인데
어제의 지난 일들은
모두 지워버려요
마틸다
울지 말아요
전화 끊지 말아요
멀지도 않은 곳인데
만날 수 없잖아요
그대여
지금 내 방엔
주인 잃은 찻잔이
고독의 먼지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마틸다
듣고 있나요
그대를 위해 비워둔
의자와 식탁도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대여 돌아와줘요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두운 계단에 앉아
그대 기다리겠어요

값3,000원



9 788973 810680



ISBN 89-7381-066

TZ-740-790